

고양소식이 더 새로워집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2월호부터 새롭게 태어납니다.

고양특례시의 가치를 더하는 이야기로,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목소리로,
독자와 더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소식지로
또 다른 시작 앞에 선 <고양소식>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고양특례시

고양시 발행인

2023 JANUARY

01
VOL. 359

COVER STORY

「북한산 일출」

면적의 70%가 고양특례시에 속해 있는 북한산은 신년 일출명소로 사랑받는 산입니다. 2023년 1월호 표지는 북한산에서 떠오르는 해를 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금씩 여명을 밝히며 떠오르는 해를 보며 희망찬 다짐을 써 내려갑니다. 건강과 행복이 넘치는 만복이 깃드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하며 고양특례시의 새 희망을 전합니다.

이탈의 꽃

소나무

“
1월 19일의 탄생화는 ‘소나무’입니다.
꽃말은 ‘불로장수’이고,
혹독한 환경에서도 늘 푸른 모습을 간직하는
정신과 절개와 인내를 배웁니다.

“
소나무의 품종 중 ‘백송(白松)’은 고양특례시의 무궁한 발전과 시민의 애郷심을 상징하는 시목(市木)이다. 껍질이 회백색을 띠는 희귀종으로 천연기념물 제60호로 지정되었다. 나무의 껍질은 맛맛하나 자라면서 점차 큰 비늘조각처럼 벗겨지고 회백색을 띠기 때문에 백골송(白骨松)라고도 부른다. 소나무 위를 타고 노는 까치는 고양특례시의 시조(市鳥)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침에 우는 까치를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는 길조로 여겨, 괴롭히거나 함부로 잡는 일이 없었다. 2023년 새해, 까치처럼 기분 좋은 지저귀임으로 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목(市木) 백송
시조(市鳥) 까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소식지
<고양원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 Freepik 작가 tawatchai07